



미 증시, 침체 불안 재부각 등으로 약세 지속

미국 증시 리뷰

6 일(화) 미국 증시는 지난 ISM 서비스업 호조 이후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재차 높아진 가운데,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대형 IB 들의 침체 관련 발언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급락 (다우 -1.03%, S&P500 -1.44%, 나스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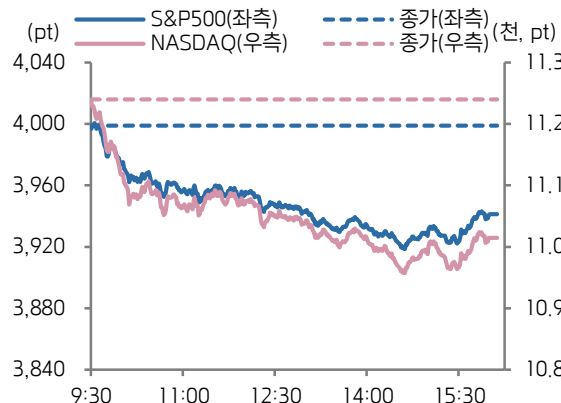
미국 부채 한도가 지난주 기준 31 조 3 천 450 억 달러까지 높아진 상태로 법정한도 도달에 임박함에 따라 내년 초에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 제기. 의회는 지난해 12월에 부채한도를 2조5천억 달러 상향한 31조4천억 달러로 적용. 골드만삭스는 1 월부터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공화당이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미국 중간선거 상원의원 한자리를 두고 조지아 상원 결선투표 시작.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과 공화당의 허셜 워커 대결로, 민주당이 조지아에서 상원 1 석을 추가할 경우 51 석 대 49 석 구도가 형성될 전망. 민주당 워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 대법관 및 고위직 인준 절차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음.

뉴욕타임즈에서 현지시간 5 일 오전 러시아 본토에서 발생한 비행장 폭발 사고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군사 비행장 두곳을 공격했고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습 배후라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확전 가능성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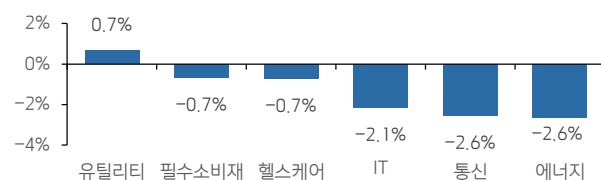
업종별로 유틸리티(+0.7%)업종만이 상승한 가운데, 필수소비재(-0.7%), 헬스케어(-0.7%) 업종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에너지(-2.6%), 통신(-2.6%), IT(-2.1%)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G7 의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 실시로 인한 원유 수송 차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에너지업종 약세. 애플(-2.54%), 알파벳(-2.51%), 아마존(-3.03%) 등 시총상위주 대부분 약세 보인 가운데, 메타(-6.79%)는 미 의회에서 플랫폼 반독점 법안의 일환인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JCPA)'이 통과될 시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여파로 급락.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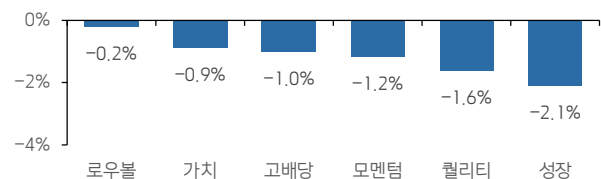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41.26	-1.44%	USD/KRW	1,319.57	+2.09%
NASDAQ	11,014.89	-2%	달러 지수	105.58	+0.28%
다우	33,596.34	-1.03%	EUR/USD	1.05	-0.23%
VIX	22.17	+6.84%	USD/CNH	6.98	+0.12%
러셀 2000	1,812.58	-1.5%	USD/JPY	137.06	+0.23%
필라. 반도체	2,673.53	-2.36%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898.10	-1.07%	국고채 3년	3.632	+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505	-3.4bp
Eurostoxx50	3,939.19	-0.44%	미국 국채 2년	4.369	-1.9bp
MSCI 전세계 지수	626.69	-1.08%	미국 국채 10년	3.537	-3.7bp
MSCI DM 지수	2,696.30	-1.34%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84.26	+1.07%	WTI	74.42	-3.26%
MSCI 한국 ETF	57.08	-1.69%	금	1783.4	+0.1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1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6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9.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발 경기 침체로 인한 미 증시 급락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중국의 11 월 수출입 지표 3. 외국인 순매수 되돌림 현상 출현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그동안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매크로 변수는 연준의 정책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지표 부진 = 연준 긴축 완화 기대”, “경제지표 호조 = 연준 긴축 강화 우려”의 논리가 성립되는 장세가 전개됐던 상황(Bad news is Good news). 현재까지도 연준 정책 변화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은 것은 사실. 그러나 이제는 연준 이외에도 이들의 고강도 긴축 및 고 인플레이션이 누적시킨 충격을 마주해야 하며, 그 충격이 미국 등 주요국 경제를 어느 정도로 둔화시킬 지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Bad news is Bad news).

전일 미 증시 낙폭 확대를 유발했던 대형 IB 수장들의 경기 관련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음. JP 모건 CEO 는 현재까지 미국인들의 소비는 코로나 이후 보조금 등에 따른 과잉 저축에 힘입어 견조했지만(GDP Now 상 4Q 미국 GDP 3.4% 예상), 고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이 위축되면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 골드만삭스 CEO 도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심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

또한 데이터 상으로도 침체의 선행지표(6~18 개월)로 활용되는 10 년물과 2 년물(-83bp), 10 년물과 3 개월물(-81bp) 등 장단기금리차는 이미 역전이 된 가운데, 각 기간물들의 역전 폭도 1990 년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불안 요인. 1998 년이나 2019 년처럼 장단기금리차가 오신히를 보낸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현재의 고 인플레이션, 타이트한 기업 신용 여건, 제조업, 고용 등 실물경제 둔화 진행을 감안 시 “장단기 금리차 역전 = 침체” 공식의 현실화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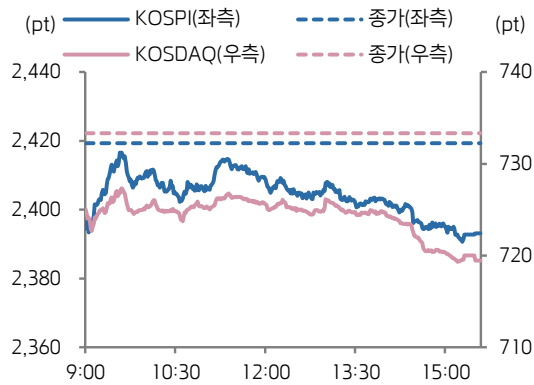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 등 주요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 시장참여자자이나 실물 경제 주체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침체 진입 여부는 주식시장에서 연저점을 다시 테스트하게 만들 정도의 대형 불확실성 or 대형 악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관건은 침체의 강도이며 얇은 침체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긴 하나,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놓고 이를 시장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연준의 긴축 불확실성 재부각에 따른 플랫폼 등 성장주 약세,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 등으로 하락 마감(코스피 -1.1%, 코스닥 -1.9%).

금일에도 글로벌 대형 IB들의 침체 발언에 따른 미국 증시 급락 충격, 달러화 강세 등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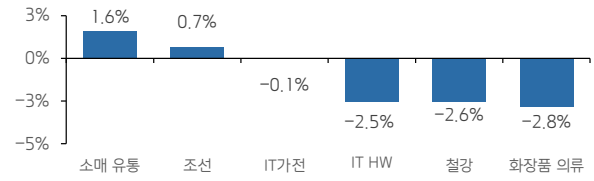
장중에는 11 월 수출(컨센 -4.8%YoY) 및 수입(컨센 -9.7%) 지표 결과에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 해당 지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낮춘 상태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부진한 수치가 발표될 시에는 “중국발 경기 부진 우려 vs 당국의 경기 부양 강화(추가 리오프닝 포함)”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중국 리오프닝 포함 대형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또한 지난 10~11 월 외국인의 대규모 한국 순매수에는 차이나런 대체 수요, 원화 강세에 베풀었던 자금의 성격도 존재했던 만큼, 해당 유형의 외국인 순매수 되돌림 현상의 출현 여부도 주시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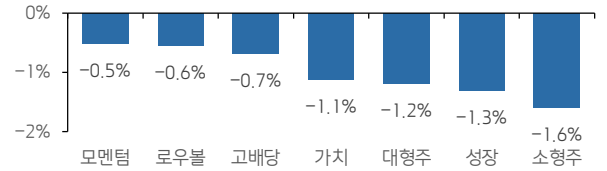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